

# “6월 물가 6%대 나오면 빅스텝 가능성”

한은 고위관계자 이례적 빅스텝 언급

물가 6%시 사상 첫 ‘빅스텝’ 나설 듯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물가가 6%대를 기록할 경우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내부 예측이 나왔다. 주요 전망기관들도 다음 달 물가를 5%대 후반~6%대 초반으로 내다보고 있어 한은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에 나서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다음달 금융위에서 ‘빅스텝’을 할지 말지 여부는 다음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6%대가 나온다면 ‘빅스텝’에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

다”며 “다만 물가가 5.8%나 5.9% 정도 나오면 조금 애매해 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라도 ‘빅스텝’ 소수의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기준금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승현 부총재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빅스텝을 시사해 왔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

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현 부총재도 23일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주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물가상승세를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다음달 13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단행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던 때는 2008년(4.7%)과 2011년(4.0%) 두 차례 밖에 없었다. 올 들어서도 3월(4.1%), 4월(4.8%), 5월(5.4%) 등 3개월 동안 4% 이상의 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물가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

준을 기록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은 집행부는 내년도에도 목표 수준을 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 집행부는 지난달 열린 금융위에서 “2008년과 2011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두 시기 모두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상승률이 1년 정도 지속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들 역시 자체 지속성을 지닌 인플레이션 발생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지난달 금융위에서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이미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플레이션의 지속기간은 과거에 비해 길어 보인다”며 “과거 물가 급등기가 1년 정도 지속됐던 만큼 인플레이션 지속기간이 과거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 미국 수도 워싱턴도 ‘김치의 날’ 제정

美 4번째...김치·한복·판소리 등 문화공정에 켜기

김치종주국 대한민국의 김치 세계화 추진 전략이 순항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현지시간 28일 수도 워싱턴 D.C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진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미국 현지에서 제정된 것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 D.C가 4번째다.

결의안에는 워싱턴D.C를 비롯한 미국 내 김치의 인기와 수요 증가,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 김치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매년 11월 22일을 워싱턴D.C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내 김치의 날이 잇따라 제정된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한복, 판소리 등을 비롯해 향후 김치 종주국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워싱턴D.C 의회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아니타 본즈’ 의원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 김치의 인기가 버지니아와 뉴욕 못지 않다”면서 “D.C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의 한국 김치 사랑이 더욱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기호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양호 등급 달성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에서 양호등급인 B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국 36개 공기업 중 9개 기관만이 양호(B)등급을 받았다. 소규모 공기업으로 B등급을 받은 것은 상당수의 대규모 공기업 보다 높은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YGPA 측은 설명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지표 비중 확대 등 사회적가치 중심의 평가 기준을 유지했으며 직무중심 보수체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YGPA는 일자리 창출, 항만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적극 대응,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국내 최초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추진, 항만운영 효율화 등 여수·광양항 발전 및 사회적가치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 출범 당시 1조812억 원(부채비율 78.5%)이었던 금융부채는 11년 동안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 24.1%로 대폭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광양·조순희 기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 광주상의 지원...취업 도움

광주상공회의소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한다.

광주상의는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을 우대함에 따라 광주·전남권 대학 등을 방문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취득하면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0여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사무직 인사 시 우대·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일부 대학에선 장학금 지급과 학점부여 등을 통해 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공기업에서도 컴퓨터활용능력이 실무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입사 면접 시 우대하고, 직원 인사고과 반영, 인센티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나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난 4월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2급) 교육을 운영했다.



홈플러스 ‘베스트 상품 대전’

홈플러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올 상반기 결산 ‘2022 베스트 상품 대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현대차 ‘아이오닉6’ 첫 공개...유선형 실루엣 강조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두 번째 모델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실제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공기역학을 감안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29일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의 내·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의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유선형 실루엣을 통해 공기역학적 형상이 구현됐다.

아이오닉 6는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효율성을 강조한 현대차의 전동화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릭과

이드 스트림 라이너(Electrified Streamliner)’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스트림라이너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뜻한다.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현대차의 두 번째 모델이다. 긴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넉넉한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더욱 입체감있게 연출된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적용됐다. 아이오닉 6의 상단과 하단 파라메트릭 픽셀은 아이오닉 6의 전면 매

트릭스 LED 램프와 리어 스포일러 등에 약 700개 이상의 픽셀로 형상화해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냈다.

새로운 현대 엠블럼이 처음으로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입체형상의 크롬 도금 대신 알루미늄 소재의 얇은 평면 형태로 제작된 새 엠블럼으로 향후 현대차가 선보이는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을 적용한 실내공간의 경우 눈에 고치를 연상시키는 코콘(Cocoon)형 인테리어를 통해 안식처와 개인 활동공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긴 휠 베이스와 함께 내연기관차와 다른 평평한 승객석 바닥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기능 조작부는 대시보드 한 영역에 주의 분산 요인을 줄였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6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는 충전 및 전원 온·오프, 음성 인식 등 차량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조명으로 표시해준다.

도어 트림에 있던 각종 조작버튼들을 모두 센터콘솔로 이동시켜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 국내 기업들 2~3분기 65만명 뽑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에 따라 올해 2~3분기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만1000명)보다 21만9000명(50.8%) 증가한 것이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4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29만7000명)보다 13만6000명(45.7%) 증가했다. 이는 2016년(33만2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기업들이 채용 계획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은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채용 계획 인원을 축소해 온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 먹구름

내달 경기전망 ‘83.2’...전월대비 6.8p 하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치가 두 달 연속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제공한 ‘2022년 7월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황전망 경기전망 지수(SBHI)는 전월(90.0) 대비 6.8p 하락한 83.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 까지 지역 중소기업 234개사(제조업 103개사·비제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역별로 광주(88.7) 전월 대비 6.4p 하락한 88.7, 전남은 전월(91.3) 대비 7.2p 하락한 84.1로 전

망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91.7) 대비 7.5p 하락한 84.2, 비제조업은 전월(88.2) 대비 6.1p 하락한 82.1로 나타났다.

이같은 체감경기 하락세는 국제원자재 값과 금리상승에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조사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여론은 ‘원자재 가격 상승(55.8%)’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49.3%)’, ‘인건비 상승(46.1%)’, ‘물류비 상승과 운송난(45.6%)’, ‘업체 간 과당경쟁(41.0%)’이 뒤를 이었다.

5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여론 평균가동률은 71.7%로 전월(70.4%) 대비 1.3%p 상승했다. /권형안 기자

#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화 수상작 선정

기술원 연구원과 매칭 통해 수상작 상용화 지원



한국광기술원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광융합 제품디자인·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다수 선정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제9회 광융합 제품디자인·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결과 총 52개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0팀 등 총 18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상은 광융합 사업화 아이디어 부문 ‘IOT 센서와 식물 생산 LED, 비타인D 생성 LED를 활용한 무선충전기’와 LED·OLED 융합 무선충전기’와 LED·OLED 융합 무선충전기’와 LED·OLED 융합 무선충전기’가 각각 선정됐다.

‘IOT 센서와 식물 생산 LED, 비타인D 생성 LED를 활용한 무선충전기’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조명과 무드등으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화 아이디어다.

‘Eternal light’는 동심원 형태의 빛 애니메이션과 어울리는 3D 패턴을 조합해 공간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LED 조명 제품 디자인이다.

한국광기술원은 올해 수상 작품을 산하 연구원과의 매칭을 통해, 특허출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후속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로 연계시킨다는 계획이 다. /권형안 기자

# 전기차 충전요금 7월부터 오른다...할인 혜택 종료

이달 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별 제도가 종료돼 7월부터 요금이 오르게 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별 제도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할인이 사라지면 전

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kW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달 경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kW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비싸진다.